

Vol.81

Into the village

지구촌나눔운동
2021 상반기 소식지

 지구촌나눔운동
Global Civic Sharing

Contents

- | | | |
|----|---|----|
| 03 | 이사장 인사말 | |
| 04 | 사업 소개
변화를 위한 판짜기, 케냐 사업소 이야기 | 16 |
| 08 | 현장 이야기
상상력과 꿈이 자라나는 르완다 마을도서관 | 18 |
| 10 | 지구촌시민교육
서로 존중하는 우리, 지켜지는 평화! | 20 |
| 12 | 후원자 인터뷰
나눔은 한 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소통'
정연옥 후원자 | |
| | | 16 |
| | | 18 |
| | | 20 |

소박한 일상, 소박한 나눔

코로나19로 답답하던 중 국토 종주에 나섰습니다. 인천 아라뱃길에서 한강, 문경새재, 낙동강을 거쳐 부산 을숙도까지 633킬로를 시간 날 때마다 걸었지요. 하루 평균 25킬로를 걸으려면 배낭도 가벼워야 합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한참을 걷다 보면 눈 앞에 펼쳐지는 풍광에 감동하고, 어쩌다 나타나는 벤치나 화장실에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소박한 일상의 여유란 이런 건가 봅니다.

우리의 일상에 풍요와 함께 빈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도 더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의 빈곤' 말입니다. 얼마 전 유행하기 시작한 미니멀라이프는 비움의 미학을 통해 마음의 풍요를 찾으려는 움직임처럼 보입니다. 저도 여행에서 돌아오면 대청소를 하지만, 버리는 게 익숙지 않은 터라 작심 3일입니다.

유엔이 제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개발과 환경보호를 이루자는 목표지요. 2030년까지 달성할 주목표가 17개, 세부 목표가 169개나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등 주로 환경에 관련된 목표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지속가능하려면,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토 길을 걸으며 생각해보니, 개개인이 가장 확실하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길이 바로 소박한 일상, 소박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일소나'인 것 같습니다. 이미 '소일소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계신 지구촌나눔운동 가족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런 나눔 운동이 더 널리 확산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김혜경

사업 소개

변화를 위한 판짜기, 케냐 사업소 이야기

지구촌나눔운동, 새로운 판을 짜다

2009년부터 케냐의 나이로비와 길길에서 여성과 빈곤 농가를 위해 활동해온 케냐 사업소는, 2018년부터 새로운 지역인 우아신-기슈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NGO는 물론 국제 NGO의 활동이 적었던 이 지역에서, 지구촌나눔운동은 특히 장애인에 주목했습니다. 케냐에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도 있고 장애인 권리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구와 시민단체가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커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율은 턱없이 낮았습니다.

이에 케냐 사업소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판을 짰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교육을 진행했고, 장애인그룹에는 역량강화와 더불어 소규모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그리고 지역 정부와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사람과 단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케냐 사업소와 다양한 파트너들은 사업이 종료된 2020년까지 3년 동안 1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우아신-기슈 각 지역을 순회하며 1,659명에게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40개 그룹의 451명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비즈니스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각 공동체에서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고, 비즈니스 교육을 수료한 장애인그룹 중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그룹에 대해 약 100만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채소 농사나 양봉, 세차장 개업 등의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장애인식개선이라는 큰 목표에 비해 짧은 기간 진행된 사업이었지만, 지역 내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사회,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하

여, 지역사회의 장애인식과 장애인의 생계 역량 부분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사업 참여자들은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이해가 늘어났다고 답했고, 실업 상태의 참여자도 사업 시작 당시와 비교해 줄었습니다. 또한 우아신-기슈 시장은 모든 정부 기관 건물을 장애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짜놓은 판 위에서 지금도 활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성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장애인 권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고,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져서 모임이 없던 시기에는 각 가정을 방문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즈니스 자금을 지원받은 장애인그룹들은 각자의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을 타다, 평화를 보다

2021년 현재, 케냐 사업소는 '안전을 타다, 평화를 보다'라는 이름의 새로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택시 '보다보다'는 케냐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케냐에서 많은 청년이 택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다보다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각종 범죄와 연루되기도 합니다.

이에 지구촌나눔운동은 오토바이 택시가 '모두에게 안전한 교통수단'이 되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대다수가 청년인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이 공동체의 인권과 평화를 증진하는 활동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청년 오토바이 택시 기사 36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 운행 교육과 더불어 인권 감수성 교육을 시행하고, 저축모임 혹은 협동조합을 조직해 동료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에게도 케냐 사업소 직원들에게도 장애인 사업은 처음이었지만, 변화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과 마음, 자원을 연결하며 판을 깔았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한 장애인그룹은 초반의 사업 실패로 돈을 다 날렸지만, 실패에서 더 큰 배움을 얻어 지금은 착실히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고, 인식개선교육을 받은 장애인 참여자는 출입이 불편했던 은행에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청해 경사로가 생길 수 있도록 했어요. 케냐 사업은 저에게도 늘 새로움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해외사업팀 우승훈 과장-

현장 이야기

상상력과 꿈이 자라나는 르완다 마을도서관

지구촌나눔운동 르완다 사업소는 2013년부터 나루바카 지역에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마을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른, 아이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오는 마을도서관인데요. 특히 아이들이 다양한 상상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상의 날개를 펼쳐요!

아이들이 쉽게 글과 친해질 수 있도록 문해 교육 프로그램인 '글 놀이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 놀이터'는 독서는 물론 동화 구연, 언어와 숫자 학습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알파벳에서 단어로, 단어에서 동화로 학습하며 놀이처럼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직접 글과 그림을 그리며 동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도서관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직접 마을로 찾아가는 도서관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스테이시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수업

또한 '기블'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스테이시 선생님과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주제는 감정 표현하기부터 날씨 세기, 학교와 공간의 물건들, 5W(What, Where, Who, Why, When) 그리고 다양한 직업들과 질병들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에 관련된 다양한 단어와 표현을 공부하며 아이들은 외국어 실력도 늘리고, 더 넓고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됩니다.



책 읽어주는 라디오

많은 학교와 교육 시설들이 임시 휴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도, 도서관에 가는 것도 어려워진 아이들에게 책 읽기의 중요성도 알리고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마을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촌나눔운동은 아이들이 더 많은 상상을 하고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이어나가겠습니다.

* 기블은 선진국의 은퇴 노인 혹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받아 아프리카 청소년과 매칭하여 영어를 가르치며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지구촌시민교육

서로 존중하는 우리, 지켜지는 평화!

지구촌시민교육은 지구촌나눔운동에서 진행하는 세계시민교육입니다. 빈곤, 불평등, 환경, 젠더 등 지구촌의 다양한 이슈를 통해 개인과 지구촌의 상호연계성을 이해하는 데 첫 번째 주안점을 두었는데요. 또한 비판적 시각과 창의적 사고를 통해 지구촌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참여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우리, 지켜지는 평화!

지구촌나눔운동은 지난 3월 'KOICA 세계시민교육 혁신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세계시민 양성이라는 사업목표를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자기주도형 실천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의 지속성을 위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양성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200여 명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있다'와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이 구체적 지역사회 과제를 발굴하고 변화를 끌어내는 소규모 동아리 공모전도 준비 중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지구촌 속 Good job

또한 남양주시 인재육성지원센터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

도적 진로 개발을 위한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세계시민교육 기반의 진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국가를 넘어 평화롭고 정의로운 지구를 위한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법과 환경일자리(그린잡)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남양주 한별중학교 교육은 어땠나요?

진로 교육 첫 시간을 한별중학교 3학년 친구들과 함께했는데요. 게임을 통해 세계의 구조를 알아보고 빈곤, 환경, 무역 등 다양한 가치를 활동으로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기후변화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학생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주 복잡하게 상호적으로 연결되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구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겠다고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서 굉장히 즐거운 수업이었습니다.

2021 중학생-고등학생 동아시아시민스쿨

동아시아시민스쿨은 동아시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된 1일 캠프 프로그램입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다문화 감수성 함양 및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동아시아시민 육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관내 850여 명의 중고등학생과 온라인으로 동아시아시민스쿨을 진행했습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이렇게 다양한 지구촌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차별과 편견을 줄이려 노력하고, 모든 지구촌 이웃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의식을 갖는 것부터가 세계시민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사는 지구촌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장서는 지구촌나눔운동이 되겠습니다.

후원자 인터뷰

나눔은 한 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촌나눔운동과 아프리카 케냐에서 특별한 사연으로 인연이 맺어진 후원자님이 계시는데요!
햇살이 눈 부신 따뜻한 봄날에 정연옥 후원자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 분야의 8년 차 마케팅 및 홍보 담당자이자 지구촌나눔운동의 후원자 정연옥입니다. 짬짬이 새로운 환경과 문화로 여행을 다니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즐거움 중의 하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요즘은 좀 힘이 빠져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떻게 지구촌나눔운동을 만나게 되셨나요?

2016년에 케냐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대륙도 처음이었고, 이국적인 풍경과 자연을 기대하며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수도에선 한인 분이 운영하는 숙소에서 머물렀었

데, 아침 같은 숙소에 묵고 있던 지구촌나눔운동 간사님들을 숙소 주인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케냐에서 양계은행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 재단이나 NGO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다양한 물자와 비용만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구촌나눔운동 간사님들을 만나 '와! 이런 곳도 있구나!' 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지구촌나눔운동을 만난 이

후 지속적으로 후원도 하고 소식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이 생각하는 '나눔'이란 무엇인가요?

나눔은 한 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나눔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은 일방적인 '전달'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주고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눔을 주는 사람과 나눔을 받는 사람 모두 서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눔이 소통하여 또 다른 나눔이 생성되는 순간을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르완다 자조그룹 분들이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마음을 나누었다는 소식을 보며, 정말 후원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나눔을 통해 저도 언젠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구는 둥그니까요.

나눔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딱히 계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여유가 있다면 저도 건강한 활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앱을 기반으로 이웃들과 물건이나 재능을 나누거나 사고파는 마켓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도 나눔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여요. 서로 주고받는 거지요. 이렇게 나눔은 우리 일상 곳곳에 언제나 존재하는 것 같아



요. 저도 평소에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양하게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아프리카 대륙뿐 아니라 가까운 베트남이나 몽골 등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구촌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여행을 잠시 못 가는 동안에 '지구촌나눔운동'에서 나눔 여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개발도상국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립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NGO 활동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구촌나눔운동과 특별한 사연으로 만나고, 그 인연이 나눔으로 이어지게 된 정연옥 후원자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나눔은 단순히 주고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과 나눔을 받는 사람 모두 서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후원자님의 말씀이 인상 깊은데요.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정연옥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구촌 이웃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하는 지구촌나눔운동이 되겠습니다.

GCS News

3/25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이취임식 진행



3월 25일, 지구촌나눔운동은 김혜경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박명광 이임 이사장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든든한 리더십으로 지구촌 이웃과 함께했으며, 앞으로도 많은 지구촌 이웃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김혜경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가 서로 돕고 사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토대로 지구촌의 더 어려운 곳에서 나눔의 손길을 펼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3/30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성과보고회 진행



3월 30일, 2019, 2020년도 KOICA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온라인 성과보고회를 진행했다. 2020년도 현지 지역조사 참여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시민사회 역량 강화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평가 및 소감을 나눴다. 2년간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총 40개의 단체가 현지 지역조사에 참여했고, 총 4개국의(페루,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스터디투어 및 NGO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인큐베이팅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지구촌나눔운동은 앞으로도 중소형 단체들의 국제개발 신규사업 참여와 사업모델 발굴을 응원하고 지지할 예정이다.

4/9 SGI 기부투게더 기부금 전달식 진행



4월 9일, SGI서울보증과 지구촌나눔운동은 지구촌나눔운동 본부에서 SGI서울보증 임직원 나눔 캠페인 'SGI기부투게더' 매칭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SGI기부투게더' 후원금은 동티모르 로스팔로스 지역의 농촌지역 개발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SGI서울보증과 지구촌나눔운동은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구촌 빈곤퇴치와 개발도상국 주민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5/12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



지구촌나눔운동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2021년 세계시민교육 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잇다'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사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5월 12일, 세계화, 인권, SDGs 등의 주제로 총 6차시의 교육을 마치고 25명의 강사가 수료했다. 이들은 중, 고등학교에 온/오프라인으로 출강하여 빈곤과 국제개발 협력, 다양성과 평등, 기후변화와 환경, 연대와 협력 등 다양한 주제로 청소년과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5/25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 지구촌나눔운동 업무협약 진행



5월 25일, 지구촌나눔운동은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서울대 내 전문 지식 네트워크와 지구촌나눔운동이 지닌 현장 전문성을 결합해, 더 많은 세계 시민들에게 나눔을 전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6/4 '나눔과 꿈' 우수 사업 수행기관 선정



6월 4일, 지구촌나눔운동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전자가 지원하는 '나눔과 꿈' 우수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된 케냐 우아신-기슈 지역에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및 소득증대사업'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유일한 글로벌복지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리 옹호 활동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Behind story

반짝반짝 빛나는 그로우투게더팀을 만나보다!

지난 5월 26일, 지구촌나눔운동은 새로운 공익상품 '그로우투게더'를 네이버 해피빈에 신규 론칭했습니다. 그로우투게더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지구 반대편 짝꿍을 위한 반려 당근 재배 키트인데요. 반짝이가 되어 르완다 농부와 함께 당근을 키우는 상품입니다.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까지의 스토리! 지금 전해드립니다.



그로우투게더 소개해주세요.

그로우투게더는 말 그대로 지구 어딘가에서 이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지의 농부님들과 한국의 구매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작물을 기르는 프로젝트입니다. 함께 작물을 기르면서 농부 선생님들의 농사 꿀팁이나 지혜를 배우기도 하고요. 현지에서 직접 그려주시는 귀여운 그림일기 '파머스다이러리'를 총 세 번에 나누어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로우투게더팀은 어떻게 모이게 되었나요?

많은 사람이 현지의 스토리를 조금 더 친숙하고 가깝게 느낄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작년에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갑작스레 삶의 변화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저희도 출장이 일상이던 삶을 잠시 멈추게 되었고, 현지의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단조롭고 무료해진 우리와 여러분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보고 싶었어요. 그즈음 저는 해외사업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총장님께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을 때 적극



적으로 추진해보라고 하셔서 팀 내 동료에게 먼저 의견을 물었고, 모금이나 홍보는 잘 모르다 보니 모금홍보팀 친구들에게 슬쩍 물어봤는데 기쁜 마음으로 응해주어, '한술, 자원, 다정, 승훈' 이렇게 네 명이 모이게 되었어요!

함께 신규 공익상품을 기획/제작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다면요?

어떤 순간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모여 팀을 꾸렸고 정해진 틀이 없다 보니 회의 시간이 너무 재밌었어요. 여태까지 단체에서 일하면서 아마 제일 재미있게 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작은 의견이더라도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여서 편하기도 했고 그 덕분에 회의 때마다 기발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매번 박수로 마무리했는데, 나중에 다른 동료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의실 안에서 박수 소리, 웃는 소리밖에 안 들려서 대체 뭘 하나 궁금하셨대요(웃음).



펀딩 완료 후, 수익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농부학교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민 교사를 교육할 전문가도 필요하고 종자, 비료, 물조리개 등 농사에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해요. 수익금은 르완다 나루바카에서 진행되는 '농부학교(Farmer Field School)'를 마을별로 조성하는 데 쓰일 예정이에요.

펀딩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한마디

먼저 르완다 농부님들과 힘차게 시작한 그로우투게더에 힘을 더해주셔서 감사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당근을 기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르완다 당근 일기를 받아보면서 재밌어해 주시고 이 당근이 여러분에게 작은 일상의 활력과 기쁨이 되었다면, 저는 이 프로젝트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해요.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